

간추린 청렴 소식

[1] 제주지검, 청렴하귤청 나눔 행사



제주지검은 작년 청사 내 화단에 심은 하귤나무에서 수확한 귤로 청을 직접 만들고, 청렴 문구를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민원인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.

모두가 '아는' 청렴에서 모두가 '하는' 청렴으로

[2] 충주지청, '청렴 한 잔 할래요'

충주지청은 청렴 실천의 동기 부여와 다짐을 위해 각자의 청렴 의지가 담긴 문구를 새긴 캘리그라피 머그컵을 제작하였습니다.



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
-청렴 캘리그라피 머그컵 중-

[3] 경주지청, 청렴 표어 공모전 실시



경주지청은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자 청렴 표어 공모전을 진행하고, 직원들이 선정한 청렴 표어로 메모지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였습니다.

부패와 차가운 이별, 청렴과 따뜻한 동행
-청렴 표어 공모전 당선작-

[4] 공주지청, '나태주 시인과 함께한 청렴 여행'

공주지청은 나태주 시인을 초청하여 청렴과 인권에 대한 통찰과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

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입니다.
감찰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.



알아보아요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O, X 퀴즈
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(22. 5. 19. 시행)의 애매한 부분을 간단한 O, X 퀴즈로 확실히 정리해볼까요?



1.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서 퇴직자, 퇴직 전 2년 이내 나를 지휘·감독 하였던 자는 나를 지휘·감독 했던 계층 선상의 모든 사람이 아닌 직속 상관에 한한다. ()
2.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다면,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. ()

(정답)

1. X, 법 제2조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퇴직자는 법령·기준에 따라 자신을 지휘·감독했던 사람으로 직속 상관을 포함하여 계층 선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.
2. X, 거래상대방과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.

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! 감성충전, 청렴 명대사



푸바오가 나오기 전, 우리가 먼저 사랑한 곰이 있습니다. 바로 곰돌이 푸입니다. 동화이자 애니메이션인 곰돌이 푸는 둔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푸와 그의 숲 속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. 곰돌이 푸는 어린이들에게는 재미를, 어른들에게는 감동을 주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

행복전도사 푸는 한 번의 행복이 내 삶을 의미있게 해준다고 말합니다.

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.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을 찾아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행복은 커지는 법입니다.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작은 행복을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~